

훈민정음 한글발음의 성명학 적용 논점 고찰

김기승*, 이종훈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동양학과

Consideration of Issues on the Naming Application of Hunminjeongum Hangul Pronunciation

Ki-Seung Kim*, Jong-Hun Lee
Dept. of oriental studies, University of Brain Education

요약 이 연구는 현재 대부분의 한국 작명가들이 적용하고 있는 ‘한글 발음오행을 적용한 작명법’의 합리성을 살펴보는 연구이다. 한글 발음오행 작명법은 이름이 실제 발음으로 표현될 시에, 표현된 발음이 발음하는 사람과 그 발음을 듣는 이에 게 청각적인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그 표현되는 이름의 소유주에게 좋거나 나쁜 영향을 준다는 전제하에 한글 발음이 가지고 있는 오행의 상생상극을 이용하여 작명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의 한글 발음오행 작명법에 대하여 연구자는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 발음오행 작명법의 역사적 과정, 현대 국어와의 관련성, 발음오행 작명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그 타당성 여부를 규명한다. 그에 대한 결과로서 훈민정음 창제원리 위반, 발음오행 작명의 역사적 유래, 발음오행 자체의 오류, 현대 국어의 음운법칙에 따른 오류, 발음오행을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 등과 그 원인을 제시하여 한글 발음오행 작명법이 불합리하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Abstract The study aims to examine the rationality of the naming system with five properties of Korean pronunciation, which is used by most Korean name writer currently. A phonetic naming system is based on the premise that when a name is called, the sounds will have an audible effect on the speaker and the listener, and this phenomenon would ultimately have a good or bad influence on the owner of the name. The phonetic naming system is to name it by using five elements’ coexistence and conflict of Korean pronunciation, and there are many progressing arguments that represent ‘The Principles of Creation of Hunminjeongum’, ‘The Historical Origin of Phonetic Naming System’ and ‘The Relevance of Modern Korean’ etc. In the process of determining the validity of these arguments, distortion between the principles of creation of Hunminjeongum and naming, a weak historical basis of the phonetic naming system, errors and problems in the usage of five elements of pronunciation, and fallacy of modern Korean phonology appear. For these reasons as above, the Korean phonetic naming system is concluded to be unreasonable, which claims not to be in line with the intention of creating Hunminjeongum.

Keywords : Hunminjeongum, Hunminjeongum-Haerae, Hunminjeongum-Unhae, pronunciation naming, naming, naming theory

1. 서론

훈민정음은 발명자와 창제원리가 밝혀진 인류 역사상 유일무이한 문자로서, 창조적이고 과학적인 인류역사의 전무후무한 발명품이다. 애민정신을 바탕으로 창제된 훈

민정음에 대해 최윤정(2009)은 종성으로 오는 글자는 별도로 만들지(制字) 않고 초성글자를 다시 사용한다(終成復用初聲)는 훈민정음의 3음소 운용방법을 최대의 독창성으로 들었다[1]. 이러한 훈민정음의 가치를 더욱 증대 및 발전시키기 위해서 창제의도에 맞는 자주적이고 주체

*Corresponding Author : Ki-Seung Kim(University of Brain Education.)

Tel: +82-10-5471-7577 email: kbs4984@hanmail.net

Received October 24, 2018

Revised (1st December 3, 2018, 2nd January 7, 2019, 3rd January 15, 2019)

Accepted February 1, 2019

Published February 28, 2019

적인 실용적 활용 범위의 확대 및 응용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이는 일상적 언어생활의 한 분야인 이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신은숙(2005)이 주장한 현대 한국의 저출산 현상으로 소수의 자녀들에게 최대한의 자원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고[2], 이에 따라 작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지자체와 정부에서도 출산 장려 정책으로 작명을 지원할 정도로 작명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안동연(2012)이 주장한 긍정적인 이름이 신체에너지를 향상시킨다는 것[3], 신상춘(2014)의 안 좋은 이름 개명 시 스트레스 감소 및 자존감이 향상되었다는 연구[4] 등 이름은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는 요소임이 확인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근현대의 작명에는 훈민정음 창제에서 의도하지 않았던 한글의 자음 오행 배속을 작명에 적용하는 특이한 현상이 있다. 한글 발음오행 작명법은 이름이 실제 발음으로 표현될 시에, 표현된 발음이 발음하는 사람과 그 발음을 듣는 이에게 청각적인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그 표현되는 이름의 소유주에게 좋거나 나쁜 영향을 준다는 전제하에 한글발음이 갖고 있는 오행 성분의 상생상극을 이용하여 이름을 짓는 작명방식을 말한다. 한글 발음오행 작명법의 시작이 창씨개명 시기에 일본식 작명법에서 유래했다는 것이 관련 연구들에 의해 주장되고 있으며[5], 발음오행 작명가들 사이의 해례본 기준과 운해본 기준의 충돌은 작명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고, 영어이름조차 발음오행을 적용하여 고비용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연구자는 현재 한국에서 적용되는 한글 발음오행 작명법의 합리성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를 위해 발음오행 작명법의 역사적 과정 등에 대한 기존 연구와 이번 연구에서 새롭게 제시된 훈민정음의 창제원리와와의 연관성, 현대 국어와의 관련성, 발음오행 작명법에 따라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통합하여 2015년에 개정한 대법원 인명용 한자를 기준으로 한글 발음오행 작명법의 오류와 그 원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2. 훈민정음 발음오행의 성명학 적용 문제점

2.1 훈민정음 창제원리 위반 여부

2.1.1 창제(創製) 목적 위반

훈민정음 창제의 목적은 『훈민정음(訓民正音)』 해례본(解例本) 예의(例義) 세종어제서(世宗御製序)에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밝혀져 있다.

“우리나라 말소리가 중국과 달라서 한자와는 서로 통하지 않으니, 이런 이유로 일반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끝내는 제 뜻을 펼 수 없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딱하게 여기고, 새로 스물여덟 글자를 만들었으니,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익혀서 매일같이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國之語音 李護中國 文字不相流通 故愚民 有所欲而終不得伸其情 多矣 予爲 此閱然 新制二十八 欲使人人易習 便於日用耳)”

이러한 세종의 훈민정음 창제 목적과 관련하여 한호현(2017)은 한글 창제가 애민사상의 발로였다고 보았으며[6], 한애희(2009)는 훈민정음 창제를 위민(爲民) · 애민(愛民) · 훈민(訓民), 민본주의(民本主義), 국가주의(國家主義)의 발현이라 하였다[7]. 이시하(2016)는 훈민정음 창제 목적에 백성들로 하여금 송사 등으로 인한 억울함을 당하지 않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음을 주장하였다[8]. 김성범(2003)은 중국 중심의 언어관을 벗어난 새로운 언어관을 피력한 것이고, 이것은 민족에 대한 확고한 자주의식과 자부심에서 가능하다고 보았다[9]. 한소윤(2014)의 훈민정음에 의해 인류 역사를 우리의 문자로 기록하는 주체적 문화 활동이 가능했다[10]는 주장과 반재원(2014)이 말한 세종이 ‘조선의 역법’을 통해 ‘조선의 하늘’을 보고자 했던 자주정신을 바탕으로 ‘조선의 문자’인 독자적 훈민정음을 만들었다[11]는 주장들을 종합하면 훈민정음의 창제 목적은 세종의 훈민, 위민, 민본주의, 주체정신, 자주정신, 실용정신 등을 포함하여 오직 백성들의 삶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훈민정음의 창제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일제 치하의 일본식 작명법에서 유래한 한글 발음오행 작명법은 그 유래와 과정에서 우리 민족의 자주정신 및 주체정신을 훼손하고 있으며, 기존의 이름 짓는 방법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규정과 방식을 추가하여 적용했다는 점에서 한글의 실용정신과 용이성 및 애민정신을 포함한 창제목적 위반하였다고 본다.

2.1.2 제자(制字) 원리 위반

훈민정음 창제의 대표적인 원리로서 삼재설(三才說)과 음양오행설(陰陽五行說)을 들 수 있다. 그 중에서 발음오행 작명법의 오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원리는 삼재

설이다. 삼재설에 의해 한글은 글자 하나하나가 모두 삼재가 반영된 초성, 중성, 종성의 세 가지 음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세 가지 음소가 하나로 합해져야만 비로소 올바른 하나의 글자 및 발음이 되는 것이다. 『훈민정음 해례본』의 제자해에서는 삼재설(天地人)과 관련하여 초성, 중성, 종성의 결합에 따라 하나의 완벽한 글자 및 음절을 이루는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다. “초성은 발동하는 뜻이 있으니 天의 일이고, 중성은 그치고 정해지는 뜻이 있으니 地의 일이고, 종성은 초성의 생겨남을 이어받아 종성의 이름을 연결해주시니 人의 일이다.(初聲有發動之義天之事也.終聲有止定之義地之事也.中聲承初之生接終之成人之事也.)”

구현서(2017)에 의하면 당시 중국은 반절법(半切法)이라는 음절 이분법을 쓰고 있었으며, 이는 음절을 성모와 운모의 두 부분으로 보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산’이라는 음절은 ‘ㅅ’라는 성모와 ‘ㅏ ㄴ’이라는 운모로 구분되며, 이는 초성과 중성으로만 구성된 이분법 방식이다 [12]. 세종은 중국식 반절법을 배제하고, 천지인의 삼재설을 적용하여 세계 문자 역사상 유례가 없는 독자적인 방식으로 한 음절을 초성, 중성, 종성이라는 세 개의 기본 음소로 보는 훈민정음을 창제한 것이다. 정인지는 해례본 서문에서 천지자연의 모든 소리가 삼재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초성, 중성, 종성 글자가 어울려 이루어진 글자로 말할 것 같으면 또한 동(動)과 정(靜)이 서로 뿌리가 되고 음과 양이 뿌리가 되고 음과 양이 엇바뀌어 변하는 뜻이 있으니, 동이란 하늘이요, 정이란 땅이며, 동과 정을 겸한 것은 사람이다.(以初中終合成之字言之亦有動靜互根陰陽交變之義焉.動者天也.靜者地也.兼互動靜者人也.)”

“천지자연의 소리가 있다면 반드시 천지자연의 글자도 있어야 한다. 그래서 옛 사람들이 소리에 따라 글자를 만들고, 온갖 사물의 실상과 통하게 하였으며 삼재의 도리를 책에 글로 써 놓으니, 후세 사람들이 함부로 바꾸지 못 한다.(有天地自然之聲則必有天地自然之文所以古人因聲制字以通萬物之情以載三才之道而後世不能易也)”

노정애(2013)는 삼재론에 대해 제자 단위를 초성·중성·종성으로 구성한 음절 삼분법과 중성의 기본 글자 ‘·, 一, |’를 각각 천·지·인에 대응하여 다양한 모음들을 결합 혹은 확장해 나간 것, 합자법에 따라 초성·중성·종성을 모아쓰게 한 것 등을 삼재론의 전형적인 적용으로 보았다[13].

이처럼 한글은 삼재론을 기본으로 하여 초성, 중성, 종성의 세 가지 요소를 합자하여 온전한 하나의 글자를 만드는 원리를 갖고 있다. 그러나 한글 발음오행 작명법은 이러한 한글의 3음소 체제를 인정하지 않고 대부분 초성만의 오행성분을 채택하는 방식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중성을 배제하여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를 합리적 근거 없이 위반하고 있다.

2.2 발음오행 작명법의 유래

한국에서의 일반적인 작명 시장은 1894년 갑오개혁에 따른 신분제도 철폐와 1909년 민적법(현재의 호적제도) 시행에 따라 하층민들도 족보에 올릴 한자로 된 이름이 필요지면서 형성되었던 것으로 본다. 이때까지도 발음오행을 적용한 작명의 기록은 찾을 수 없고, 관련 연구들에 의하면 일반적인 추세로서의 발음오행 작명은 일제 강점기인 1940년도의 창씨개명을 본격적인 시작으로 본다.

일본 성명학의 시조라 일컫는 구마사키 겐오는 주로 네 글자로 이루어진 일본인의 이름에 맞는 획수의 결정 방식과 음절 문자인 일본어 음운에 맞게 발음오행을 적용하였다. 김만태(2014)에 의하면 1940년의 창씨개명 시행을 개인적 이익 창출과 자신만의 일본식 작명법을 전파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본 구마사키 겐오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창씨개명 영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다[14]. 대구MBC는 구마사키 겐오의 손자며느리를 취재하여 1940년 창씨개명 몇 해 전부터 이미 경성에 구마사키 겐오의 문하생들이 별도의 조직을 통해 구마사키 겐오의 성명학을 체계적으로 전파하였음을 보도하였다. 신상용(2012)은 현재 한국의 대다수의 발음오행 작명론자들이 훈민정음운해본의 오행배속을 적용하는 것으로 파악되나, 시기적인 이유와 발음, 소리 등으로 보아도, 훈민정음운해와 일본 구마사키 겐오의 음령오행론은 아무런 관련성이 없으며, 한국 발음오행 성명학은 단순히 일본 구마사키 겐오의 이론을 따르는 것이라고 하였으며[15], “구마사키 겐오는 어디까지나 음령오행의 구분을 일본어 발성으로 하였다. 이 일본어 오행구분 방식을 한글의 오행 구분에 적용하는 것은 모순이며, 현재도 이러한 모순된 일본 구마사키 겐오의 음령오행 이론을 작명 시에 대부분 적용하고 있다.”[16]라고 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유래를 갖고 있는 발음오행 작명법은 운해본 방식이든 해례본 방식이든 세 개의 음소가 합해

저서 하나의 음절로 발성하는 한국어와는 맞지 않는, 음절문자에 맞는 일본식 작명법임과 동시에 일제의 식민통치를 공고화하기 위한 목적에 따라 전파된 작명방식인 것이다.

2.3 발음오행 자체의 모순점

2.3.1 운해본과 해례본 적용의 충돌

발음오행 작명법은 초성의 자음 오행배속 분류에 따라 해례본과 운해본으로 나누어진다. 즉, 해례본에서의 ㅈ발음(口, ㅈ, ㅉ)과 ㅊ발음(口, ㅊ)의 오행배속이 운해본에서는 반대로 되어 있다. 현재 대부분의 작명가들이 사용하는 운해본 기준으로 이름을 지으면 해례본 기준의 작명가들이 잘못되었다고 하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일반 소비자들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의 배경에는 운해본 적용론자들이 작명에 있어서만큼은 해례본의 초성 오행배속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운해본이 고전 동양학의 다수 발음 분류 체계를 따른다는 점과, 한국의 작명가 중 운해본 기준 작명가들이 월등하게 많다는 점 등을 이유로 그들은 ㅈ, ㅊ 발음에 대해 해례본 오행배속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해례본이 훈민정음 창제의 원리를 밝히긴 했지만 초성의 오행배속만큼은 운해본 기준이 옳다고 불합리한 근거들을 만들어서 주장하고 있다. 반대로, 해례본 발음오행론자들도 해례본의 오행배속이 작명을 위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행되었던 운해본 오행배속 기준이 해례본과 다르다는 관점에서만 출발하여 해례본 기준의 발음오행 작명법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운해본과 해례본의 오행 배속 문제 차원이 아닌, 발음오행 배속을 작명에 적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해례본, 운해본의 충돌과는 별개로, 초성에 대해서만 발음오행 기준을 적용할지, 초성과 종성에 모두 발음오행 기준을 적용할지에 대해서도 작명가들마다 기준이 상이하다. 이 또한 발음오행 작명법이 갖는 또 하나의 문제점이다.

2.3.2 종성 배제의 문제

발음오행에는 종성 없이 초성에만 적용하는 이론과 초성과 종성에 모두 적용하는 이론이 있다. 이러한 종성 배제는 발음오행의 여러 오류 중에서 가장 근원적 오류에 속하는 문제이다. 한국의 말소리는 초성, 중성, 종성

의 세 부분이 결합해야만 하나의 음절, 즉 발음을 구성할 수 있다. 세 음소가 결합할 때 가장 중심인 역할을 하는 것이 모음인 중성인데 훈민정음 해례본에 이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다.

“중성은 초성에서 발생한 음을 이어받아 종성에 연결시켜 완성하니 사람이 하는 일과 같다. 대체로 자운의 요체는 중성에 있어서 초성과 종성을 결합하여 음절을 형성한다.(中聲承初之生, 接終之成, 人之事也. 蓋字韻之要, 在於中聲, 初終合而成音.)”

이 때 초성 혹은 종성을 생략해도 음절 구성이 가능하나, 중성을 생략해서는 음절 구성이 절대로 불가능하며, 이만큼 중성은 음절의 구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머니 역할(母音)을 하는 것이다. 또한, 보편적인 언어구성에 있어서 음절의 구성은 두음(onset), 핵음(nucleus, 음절 핵), 말음(coda)으로 이뤄지며, 핵음과 말음을 합하여 운모(rhyme)를 이루게 된다. 음절은 두음과 운모로 나누어지며, 한국어와 영어에서는 모음만이 유일하게 음절 핵을 이룰 수 있다[17]. 이러한 내용들을 고려할 때 굳이 발음오행을 작명에 적용한다면 음절을 구성하는 자음과 모음의 길이, 음향적 에너지 등을 감안해서 당연히 모음 또한 적용되어야 하며[18], 초성이나 종성보다는 실질적인 발음 생성의 주체적 역할을 하는 중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인류 진화적 관점에서, 현생인류는 기도에서 구강 및 비강으로 이어지는 발성기관 구조가 바로 직전 인류인 네안데르탈인에 비하여 목구멍 부분의 꺾임이 훨씬 더 구부러지게 진화하여, 내쉬는 호흡 시 성대를 울려 다양한 소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체류 공기량이 더욱 많아졌고, 이를 통해서 두뇌 속의 사고를 표현할 수 있는 더욱 다양한 음성기호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19]. 이러한 사실은 모음이 조음기관(調音器官) 혹은 발성기관의 장애나 저항을 받지 않고 나는 소리이며, 자음이 조음기관이나 발성기관의 장애, 저항을 활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리임을 고려할 때 인류 진화적으로 모음이 훨씬 더 오래전에 발생했고 사용됐던 인류의 근원적 소리임을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중성을 배제한 채 초성이나 종성만을 적용하는 현재의 발음오행 작명법은 논리적으로 가장 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2.3.3 종성 배제의 문제

대부분의 발음오행론자들이 종성을 배제하는 것은 앞에서 고찰한 중성의 문제와 동일하게 음절 전체의 소리를 반영하지 못하고 왜곡하는 것이다. 훈민정음 해례본 제작해서는 중성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초성에는 일어나 움직이는 뜻이 있으니, 이는 하늘이 하는 일이며, 종성에는 멎어 정하게 하는 뜻이 있으니, 이는 땅이 하는 일이라.(初聲有發動之義 天之事也. 終聲有止定之義 地之事也.)”

이러한 중성의 역할이 없으면 한 음절은 음절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없는데, 예를 들어 ‘금’이라는 발음에서 종성인 ‘ㄹ’이 없다면 ‘그’라고 발음하고 또 들리게 되어 원하는 ‘금’에 해당하는 발음을 못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훈민정음 해례본은 별개의 종성을 만들지 않고 초성을 다시 종성으로 사용하여 초성과 종성의 가치가 다르지 않고, 다만 시작과 마무리하는 역할로서만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훈민정음 해례본 제작하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중성에 초성을 다시 씌운, 그것이 움직여 양이 된 것도 乾이요, 멎어 음이 된 것도 乾 때문이니, 乾은 실로 음양으로 나뉘어 주재하여 다스리지 않음이 없기 때문이다.(終聲 復用初聲者 以其動而陽者乾也 靜而陰者亦乾也 乾實分陰陽而無不君宰也.)”

초성을 종성인 받침으로 다시 쓰는 것은 인류 역사상 초유의 독보적이고 창의적인 훈민정음만의 차별성으로, 최윤정(2009)은 초성글자를 종성글자로 재사용하는 훈민정음의 운용방법(終成復用初聲)이야말로 훈민정음의 가장 빛나는 독창적인 업적이며, 이러한 방식을 기본으로 하여 훈민정음이 진정한 자모 문자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20]. 훈민정음 창제 당시 중국뿐만이 아닌 어떤 주변국도 하나의 음절을 세 개의 부분으로 구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러한 방식이 기본 글자(단위 글자)의 수를 최소화 되고, 조합에 따라 어떤 글자도 구성이 가능함을 간파한 것과 초성을 종성에 다시 사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파악한 것과 이를 실제의 문자로 만든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없었던 획기적인 업적인 것이다. 이렇듯 훈민정음의 위대함과 독창성을 보여주는 중성의 기능과 역할을 배제하는 발음오행 작명법은 훈민정음의 독창적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다.

2.3.4 발음 자체의 무의미성

언어가 의사소통의 도구로써, 혹은 정보전달의 수단으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언어에 담겨진 의미가 전달이 되어야 한다. 국어의 경우 의미 전달이 가능한 언어의 구성 과정은 가장 기본 단위부터 음소-음절-형태소-단어-어절-문장-이야기 순서로 된다. 형태소는 특정한 의미를 갖는 가장 작은 언어의 단위로서, 형태소가 분리되면 의미도 파괴되는 것이다. 심보토모코(新保朝子, 2016)는 음운을 이루는 단위의 속성은 화자와 청자가 공통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언어학적인 지식(linguistic knowledge)이어야 한다고 하여[21] 국어에서는 형태소라는 것이 의미에 대한 사전 약속을 나타내는 최소의 단위임을 말하고 있으며, 음소는 음절을 만들기 위한 성분으로서의 기능임을 말하고 있다. 이처럼 의미가 전달되기 위해서 같은 언어를 쓰는 구성원들끼리 합의가 된 형태소가 최소 단위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한국어에 대해 초성 자음들에게 오행이 배속되어 있다고 해서, 음소인 각 자음들이 각각의 오행정보를 갖고 있으며, 그러므로 자음들이 상생상극한다는 발음오행 작명론자들의 주장은 오행이론의 과잉적용이라고 본다.

이러한 측면에서 김기승(2017)은 발음오행 작명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사과 ㅈ은 금(金) 발음이다. ‘사랑해’는 좋은 뜻이나 ‘사기꾼’, ‘소름 끼친다’는 나쁜 뜻이다. 이렇듯 자음의 발음 자체에 기운이 담겨져 전달된다는 것은 밝혀진 사실도 없고 동의되지 않는 점이 있다.[22]” 오행의 기본 요소인 목화토금수(木火土金水)조차도 운해본 기준 발음오행 적용 시 목(木)은 수(水)로 화(火)는 토(土)로 토(土)는 화(火)로 금(金)은 목(木)으로 수(水)는 금(金)으로 상생상극을 적용한다는 것이고, 해례본 기준 발음오행 적용 시 목(木)은 토(土)로 화(火)는 수(水)로 토(土)는 화(火)로 금(金)은 목(木)으로 수(水)는 금(金)으로 상생상극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황당한 결론이 나오는 이유는 초성 자음들이 오행 배속에 따른 정보를 기준으로 상생상극을 한다는 가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초성 자음들이 오행의 정보를 기준으로 상생상극 한다는 가정이 잘못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2.4 국어 음운법칙에 따른 모순

최서진(2016)은 음절이 결합되면서 단어가 만들어질 때 앞이나 뒤에 있는 음소에 의하여 발음이 변하는 불규칙성이 존재하며, 이렇게 음이 변하는 현상에 있어서 규

칙성이 존재할 때 이것을 음운규칙이라고 하였다[23]. 이러한 음운규칙은 현재 한국어에 실제로 존재하는 현상이므로, 이러한 음운규칙 현상 하에 발음오행 작명법이 적용될 때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개별적 음운규칙 별로 살펴본다.

2.4.1 자음접변 적용의 문제

자음접변은 동화(同化)현상의 하나로서 한 단어나 복합어에서 두 개의 자음이 직접 충돌될 때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 닿소리 이어바뀜이라고도 한다.

사례 : 먹는다→명는다, 국물→궁물, 앞마을→암마을, 잡는다→잡는다, 밋리→면니, 빛나다→빈내다, 맛나다→만나다, 만며느리→만머느리, 칼날→칼랄, 천리→철리, 굽리→굽니 등

특히 이름의 경우에 앞에 글자의 받침들이 ㄴ, ㄷ, ㅁ, ㅇ 일 때 바로 이어지는 뒤의 글자가 여, 야, 요, 유처럼 복모음이면 복모음이 녀, 냐, 뇨, 뉴 또는 려, 라, 료, 류로 발음이 바뀌는 경우가 많다.

• 운해본 발음오행 적용 시

‘함유성’은 초성 ㅎ(土)-ㅇ(土)-ㅅ(金)으로 지어져 土生金으로 발음오행 기준에 맞게 작명되었지만, 실제 발음할 때는 ‘함뉴성’으로 발음되어 ㅎ(土)-ㄴ(火)-ㅅ(金)의 초성이 되어 火剋金하는 이름으로 된다.

• 해례본 발음오행 적용 시

‘진석호’는 초성 ㅈ(金)-ㅅ(金)-ㅎ(水)이 되어 金生水로 발음오행 기준에 맞게 작명되었지만, 실제 발음할 때는 ‘진석호’로 발음되어 ㅈ(金)-ㅅ(金)-ㅋ(木)의 金剋木하는 이름으로 된다.

이처럼 해례본이든 운해본이든 발음오행을 적용하면, 앞 글자의 받침과 뒤에 오는 글자의 구성에 따라서 실제 발음할 때는 뒤에 오는 글자의 초성이 바뀌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경우에 작명 시의 상생상극이 달라지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2.4.2 두음법칙 적용의 문제

두음법칙은 어두(語頭)에 위치한 자음이 제약을 받아서 일어나는 독특한 현상이다.

사례 : 량심(良心) ->양심 : 개량(改良), 리학(理學) -> 이학 : 원리(原理), 낭반(兩班) ->양반 : 한량(一兩), 여자(女子) -> 여자 : 자녀(子女) 등

• 운해본 발음오행 적용 시

‘권량건’은 초성 ㄱ(木)-ㄹ(火)-ㄱ(木)으로 지어져 木生火, 木生火로 발음오행 기준에 맞게 작명되었지만, 실제 이름만이 불릴 때는 ‘량건’이라고 불리지 않고 ‘양건’이라고 불리게 된다. ‘양건’은 초성 ㅇ(土)-ㄱ(木)으로 木剋土하는 이름이 된다.

• 해례본 발음오행 적용 시

‘방류빈’은 초성 ㅂ(土)-ㄹ(火)-ㅂ(土)으로 火生土, 火生土로 지어져 발음오행 기준에 맞게 작명되었지만, 실제 이름만이 불릴 때는 ‘류빈’이라 불리지 않고, ‘유빈’이라 불리게 된다. ‘유빈’은 초성 ㅇ(水)-ㅂ(土)이 되므로 土剋水하는 이름이 된다.

이처럼 초성에 ‘ㄴ’이나 ‘ㄷ’이 오는 이름이 이름만 불릴 때 ‘ㅇ’ 발음으로 변하게 되면 그 뒤의 초성에 따라 상생구조가 상극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해례본이든 운해본이든 발음오행을 적용하면, 이름만 불릴 때와 성씨까지 불릴 때 상생, 상극이 달라지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한편 대법원 인명용 한자의 지정 조건에는 “첫소리(初聲)가 ‘ㄴ’ 또는 ‘ㄷ’인 한자는 각각 소리 나는 바에 따라 ‘ㅇ’ 혹은 ‘ㄴ’으로 사용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것은 두음법칙을 인정하는 것으로 발음오행상의 火 소리인 ‘ㄴ, ㄷ’이 水 소리(해례본) 또는 土 소리(운해본)인 ‘ㅇ’ 발음으로 변경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발음오행이 모순임을 내포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2.4.3 연음법칙 적용의 문제

연음법칙은 앞의 음절 받침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음절의 허사(虛辭, 음가 없는 ‘ㅇ’)가 연결될 때, 앞 음절의 받침소리가 뒤 음절의 첫소리로 이어져 소리 나는 현상, ‘달맞이’가 ‘달마지’로 소리 나는 따위이다. 이것은 다음에 살펴볼 ‘ㅇ’음가의 문제와 연관된 것으로, 음가 없는 초성 ‘ㅇ’이 바로 앞 음절의 받침과 충돌하지 않으므로 발생하는 현상이다.

• **운해본 발음오행 적용 시**

‘명신우’는 초성 ㄹ(水)-ㅅ(金)-ㅇ(土)으로 지어져 金生水, 土生金으로 발음오행 기준에 맞게 작명되었지만, 실제 발음 시에는 ‘명시누’로 발음되어 초성이 ㄹ(水)-ㅅ(金)-ㄴ(火)으로 火剋金하는 이름이 된다.

• **해례본 발음오행 적용 시**

‘김현야’는 초성 ㄱ(木)-ㅎ(水)-ㅇ(水)으로 지어져 水生木으로 발음오행 기준에 맞게 작명되었지만, 실제 발음 시에는 ‘김혀나’로 발음되어 초성이 ㄱ(木)-ㅎ(水)-ㄴ(火)으로 水剋火하는 이름이 된다.

이처럼 중간이나 마지막 음절의 초성에 ‘ㅇ’이 들어가면 바로 앞 음절의 받침이 이어지는 뒤 음절의 초성이 되어 앞 음절의 받침 종류에 따라서 실제 발음할 때 상생구조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다. 이렇게 해례본이든 운해본이든 발음 오행을 적용하게 되면, 실제 발음 시 연음법칙의 효과가 나타날 때 상생상극이 바뀌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2.4.4 ‘ㅇ’ 음가의 적용 문제

음가(音價)는 발음기관의 기초적 조건에 의해 단위적 작용에 따라 생기는 성음 현상으로서 다른 말로 ‘소릿값’으로도 표현한다. 현재 사용 중인 14개의 자음은 그것이 초성이든 종성이든 모두 각각의 고유한 소릿값을 갖고 있는데, 유달리 ‘ㅇ’의 경우 초성에 올 때에는 소릿값을 갖지 않는 특성이 있다. 즉, ‘ㅇ’은 종성으로 쓰일 때만 소릿값을 갖는다. (이러한 특성은 앞에서 고찰한 연음법칙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 예를 들어 ‘ㅇ’을 초성으로 갖는 ‘안’, ‘이’, ‘유’, ‘원’ 등의 성씨들은 초성으로 표기된 ‘ㅇ’이 실제로는 음가를 갖지 않는다. 그러나 발음오행 작명가들은 해례본을 따르면 ‘水’의 오행을 갖는다고 보고, 운해본을 따르면 ‘土’의 오행을 갖는다고 보아 발음오행을 적용하고 있다.

• **운해본 발음오행 적용 시**

‘안정희’는 초성 ㅇ(土)-ㅈ(金)-ㅎ(土)로 지어져 土生金, 土生金으로 발음오행 기준에 맞게 작명되었지만, 성씨의 초성 ‘ㅇ’은 실제 발음되지 않으므로 발음오행을 적용한다면 실제로 소리가 나는 모음 ‘ㅈ’의 발음오행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ㅈ(木)-ㅈ(金)-ㅎ(土)이 되어

서 金剋木하는 이름이 된다. 성씨의 모음 대신 첫 번째 자음인 ‘ㄴ’을 적용하게 되면 ㄴ(火)-ㅈ(金)-ㅎ(土)으로 火剋金하는 이름이 된다. 실제 발음되는 성씨의 모음이나 받침, 어떤 것을 적용하더라도 발음오행의 기준과 맞지 않게 된다.

• **해례본 발음오행 적용 시**

‘우연정’은 초성 ㅇ(水)-ㅇ(水)-ㅈ(金)으로 지어져 水生水로 발음오행 기준에 맞게 작명되었지만, 성씨의 초성 ‘ㅇ’은 실제 발음되지 않으므로 발음오행을 적용한다면 실제로 소리가 나는 ‘ㅈ’의 발음오행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같은 이유로 두 번째 글자의 초성 ‘ㅇ’도 실제 발음되지 않으므로 발음오행을 적용한다면 실제로 소리가 나는 ‘ㄴ’의 발음오행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ㄴ(火)-ㄴ(木)-ㅈ(金)이 되어서 金剋木하는 이름으로 된다. 성씨 및 중간 글자의 모음을 배제하고 첫 번째 자음인 ‘ㄴ’을 적용하게 되면 이름의 자음만 남아서 ㄴ(火)-ㅈ(金)으로 火剋金하는 이름이 된다. 소리가 나는 성씨, 중간글자의 모음이나 받침 그 어떤 것을 적용하든 간에 발음오행의 기준과 맞지 않게 된다.

한편, 초성과 종성에 모두 발음오행을 적용하는 작명가들이 있으나, 이들의 경우에도 초성의 ‘ㅇ’과 종성의 ‘ㅇ’을 모두 같은 오행에 배속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해례본의 제자원리에서 밝히고 있는 대로 초성의 ‘ㅇ’은 음가가 없으므로 水에 배속되고 종성의 ‘ㅇ’은 음가를 가지면서 木으로 배속되는 것이다. 그러나 발음오행 적용론자들은 ‘ㅇ’의 위치한 곳이 초성인가 종성인가의 구분 없이 동일하게 水오행(해례본 기준) 또는 土오행(운해본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는 발음오행 적용론자들이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와 현대의 음운법칙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 없이 발음오행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4.5 성(姓)과 이름의 합성 및 분리 시의 문제

실생활에서 이름이 사용될 때 성씨가 포함돼서 불릴 때와 성을 제외하고 이름만이 불리는 경우가 있다. 이는 현실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이러한 현상에 발음오행을 적용하게 되면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성씨를 포함하여 음운규칙까지 고려해서 발음오행 기준에 맞게 작명했다더라도 성씨 없이 이름만을 부르는 경우에는 성씨의 음절이 없어지므로 성씨 이름의

연결에서 발생하는 음운규칙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성과 이름의 결합에 대한 음운규칙을 전제하여 작명하였으므로 성이 없어진 이름만의 경우 발음오행 기준에 안 맞는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는 원리적으로 음운규칙이 존재하는 한 성씨를 포함할 때와 안할 때 모두를 발음오행 기준에 만족시키는 이름들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발음오행 작명 정의를 따르는 모든 작명법들은 그 방식의 독창성 여부와 상관없이 이러한 원리적, 근원적 모순을 피해갈 수 없다.

• 운해본 발음오행 적용 시

‘선영철’은 초성 ㅅ(金)-ㅇ(土)-ㅈ(金) 으로 지어져 土生金으로 발음오행 기준에 맞게 작명되었지만, 실제 소리 날 때는 ‘서녕철’로 발음되어 ㅅ(金)-ㄴ(火)-ㅈ(金)이 되어 火剋金하는 이름이 된다. 이는 글자가 발음오행 기준에 맞으면 실제 발음이 발음오행 기준에 안 맞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성과 이름이 분리되어 이름만 불리면 ‘영철’로 발음되어 발음오행 기준에 맞게 된다. 즉, 성이 포함돼서 불릴 때와 이름만이 불릴 때 둘 중의 하나는 반드시 발음오행 기준으로 안 맞는 상황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이름이다.

• 해례본 발음오행 적용 시

‘김인형’은 초성 ㄱ(木)-ㅇ(水)-ㅎ(水)으로 지어져 水生木하여 발음오행 기준에 맞게 작명되었지만, 실제 소리 날 때는 ‘기민형’로 발음되어 ㄱ(木)-ㅁ(土)-ㅎ(水)이 되므로 木剋土, 土剋水인 이름이 된다. 이는 글자가 발음오행 기준에 맞으면 소리가 안 맞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성과 이름을 분리되어 이름만 불릴 때 ‘인형’으로 발음되어 발음오행 기준으로 맞는 이름이 된다. 즉, 성이 포함돼서 불릴 때와 이름만이 불릴 때 둘 중의 하나는 발음오행 기준으로 안 맞는 상황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이름이다.

2.5 발음오행 적용의 모순점

2.5.1 순우리말 이름 작명 시 문제

실제 생활 속에 있는 아름답고 좋은 의미를 가진 단어를 사람의 이름에 쓰고자 하는 순우리말 이름은 발음오행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순우리말 이름이 발음오행 기준으로 맞지 않는 사례들을 표로 정리하였다.

Table 1. Sample of nonconformity with Hangeul Pronunciation Naming in Name of Pure Korean

| Name of Pure Korean | View Point of Hunminjeongeum Unhaebon | View Point of Hunminjeongeum Haeraebon |
|---------------------|---------------------------------------|--|
| 고운 | 木剋土 | |
| 단비 | 水剋火 | |
| 마음 | 土剋水 | 土剋水 |
| 미르 | 水剋火 | |
| 믿음 | 土剋水 | 土剋水 |
| 바다 | 水剋火 | |
| 밝음 | 土剋水 | 土剋水 |
| 봄이 | 土剋水 | 土剋水 |
| 빛나 | 水剋火 | |
| 소리 | 火剋金 | |
| 아름 | | 水剋火 |
| 얼지 | 火剋金 | |
| 은비 | 土剋水 | 土剋水 |
| 하늘 | | 火剋金 |
| 한결 | 木剋土 | |
| 한별 | 土剋水 | 土剋水 |
| 해님 | | 水剋火 |
| 해봄 | 土剋水 | 土剋水 |

순우리말 이름 전체에 발음오행을 적용하는 경우 불합치 비율이 얼마일지는 알 수 없으나 이는 발음오행 불합치 비율의 문제가 아닌 순우리말 이름이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한국어 단어들의 일부라는 점에서 한국어 자체가 발음오행 기준을 적용해서 만들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며, 순우리말을 이름에 사용할 때 발음오행 기준 적용은 옳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2.5.2 두 글자 이상의 성씨(姓氏) 문제

현재 한국에 존재하는 성씨 중에서 남궁, 독고, 등정, 동방, 망절, 무본, 사공, 선우, 서문, 어금, 제갈, 황보, 황목 등과 같이 두 글자로 이루어진 성씨들의 이름을 지을 때 발음오행 기준을 적용하려면 성씨의 첫 번째 음절에 기준을 둘지, 두 번째 음절에 기준을 둘지 모호하다. 어떠한 경우에도 실제 소리 나는 글자 하나를 무시하는 불합리성이 있고, 이러한 불합리성을 없애기 위해 두 글자 모두의 발음을 포함하면 다음과 같은 모순이 나온다. 해례본 기준으로는 사공: 金剋木, 등정: 火剋金, 제갈: 金剋木, 황보: 土剋水, 황목: 土剋水 씨 등이 성씨 자체에서 상극하고 있으며, 운해본 기준으로는 등정: 火剋金, 동방: 水剋火, 어금: 木剋土, 사공: 金剋木, 제갈: 金剋木, 황보: 土剋水, 황목: 土剋水, 씨 등이 성씨 자체에서 상극

을 하고 있다. 발음오행 기준에서는 이들 성씨들은 어떠한 이름을 지어도 좋은 이름을 가질 수 없다. 또한 ‘선우’씨의 경우에는 문자적으로는 金生水(해례본 기준), 土生金(운해본 기준)으로 발음오행 기준에 문제가 없는 듯 하지만 실제 발음 시에는 ‘서누’로 발음되어서 火剋金하는 형태이다. 발음오행은 실제 소리를 중시하는 작명법이기 때문에 ‘선우’씨도 그 자체 내에 발음오행 기준으로 상극한다고 봐야 한다. ‘어금’씨의 경우, 상극의 문제 외에 앞에서 살펴본 ‘ㅇ’음이 문제로 발음오행 기준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 한편, 외국인 귀화성씨들의 경우 세 글자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다. 예를 들어 필리핀계로는 플라낙촌치타, 킬랑로즈, 글로리아 알퀘아포스 등의 145가지의 귀화 성씨들이 있고, 베트남계로는 누구엔티수안 등이, 태국계로는 남강캉마 등이, 방글라데시계로는 투비악달 등의 여러 글자로 구성된 귀화 성씨들이 있는 것이다. 국제화에 따라서 이러한 형태의 세 글자 이상 귀화 성씨들은 더욱 증가할 것이 예상되며, 한국 국민인 이러한 성씨들에게 발음오행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더욱 많은 모순점을 유발한다. 이와 같이 발음오행 작명은 특히 두 글자 이상의 성씨에서 많은 모순을 제기한다.

2.5.3 작명의 다양성 제한 및 축소

한국인 작명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대법원 지정 8,142개 한자에 대해 발음오행을 적용하는 경우 이름 개수가 어느 정도 축소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현재 한국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두 글자 이름을 지을 때 첫 번째 자리에 8,142의 한자가 모두 올 수 있고 두 번째 자리에도 모든 한자가 가능하므로 대법원 지정 인명용 한자 8,142개로 가능한 두 글자 이름의 총 개수는 $8,142 \times 8,142 = 66,292,164$ 개 이다.

먼저 운해본 기준 적용 시 8,142개의 한자를 초성의 오행별로 분류하면 木(ㄱ, ㅋ) : 1,234개, 火(ㄴ, ㄷ, ㄹ, ㅌ) : 1,121개, 土(ㅇ, ㅎ) : 2,112개, 金(ㅅ, ㅈ, ㅊ) : 2,458개, 水(ㅇ, ㅂ, ㅍ) : 1,217개이다. 이렇게 나온 초성의 오행별 글자 개수를 이용해서 첫 번째 글자들의 오행과 결합 가능한 두 번째 글자들의 발음오행 조합 개수는 다음과 같다. 木의 첫 번째 글자와 가능한 두 번째 글자의 초성은 木: 1,234개, 火: 1,121개, 水: 1,217개이다. 즉, 첫 번째 木의 글자와 결합 가능한 두 번째 글자의 초성 개수는 木, 火, 水를 초성으로 하는

3,572(1,234+1,121+1,217)개이며, 첫 번째 木의 1,234개와 3,572개의 두 번째 글자가 각각 결합하므로 木의 첫 번째 글자와 발음오행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두 글자 이름의 전체 개수는 $4,407,348(1,234 \times 3,572)$ 개이다. 동일한 방식으로 火, 土, 金, 水의 첫 번째 글자와 결합 가능한 두 번째 글자를 구해 가능한 두 글자 이름의 개수를 구하면 火: 5,007,507개, 土: 12,019,392개, 金: 14,224,446개, 水: 5,974,253개로 이들을 모두 합하면 운해본 기준의 발음오행을 적용하여 작명 가능한 두 글자 이름의 모든 개수는 41,633,446개이다. 이는 발음오행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에 지을 수 있는 66,292,164개에 비해 62.8% 밖에 활용되지 못함을 의미한다.

한편, 성씨(姓氏)까지 포함하여 두 글자의 이름과 발음오행 기준을 적용하면 더욱 많은 경우의 수가 존재하며, 실제로는 모두 성씨를 고려한 발음오행을 적용하기 때문에 성씨와 이름에 발음오행 기준을 적용하면 얼마나 많은 수의 이름들이 사장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에 의하면 5인 이상이 쓰고 있는 한국의 성씨는 531개이다. 여기에는 남궁, 독고, 등정, 동방, 망절, 무분, 사공, 선우, 서문, 어금, 제갈, 황보, 황목 등 12개의 두 글자 성씨가 포함되며, 이름과 바로 연결되는 성씨의 두 번째 음절 초성에 발음오행 기준을 맞추는 조건하에 연구하기로 한다. 즉, ‘독고’씨는 이름과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두 번째 음절 ‘고’의 초성 ‘ㄱ’을 발음오행 적용 대상으로 보아 木의 오행으로 본다. 운해본 기준으로 각 오행의 성씨를 분류하면 木(ㄱ, ㅋ) : 71개, 火(ㄴ, ㄷ, ㄹ, ㅌ) : 64개, 土(ㅇ, ㅎ) : 151개, 金(ㅅ, ㅈ, ㅊ) : 161개, 水(ㅇ, ㅂ, ㅍ) : 84개이다.

531개의 성씨를 이용하여 가능한 전체 이름의 개수는 성씨의 자리에 531개가 위치할 수 있으며 가운데 자리에 8,142개, 세 번째 자리에 8,142개가 위치할 수 있으므로 $531 \times 8,142 \times 8,142 = 35,201,139,084$ 개(약 352억 개)이다. 다음으로 성씨와 두 글자 이름에 발음오행 기준을 적용하여 작명 가능한 모든 이름의 개수를 다음과 같이 추출한다.

앞에서 확인한대로 木의 발음오행 성씨는 71개이며, 발음오행 기준을 만족하기 위해서 이 성씨들은 두 번째 글자를 木, 火, 水의 발음오행만을 갖는 인명용 한자들을 쓸 수 있다. 즉, 이름만의 발음오행 기준을 만족시키는 이름의 전체 개수는 木에 대해 4,407,848개, 火에 대해 5,007,507개, 水에 대해 5,974,253개이며 각각의 숫자에

木발음오행 성씨 개수인 71을 곱하면 성씨가 포함된 두 글자 이름 개수는 총 1,092,662,168개이다. 각각의 오행 성씨에 동일한 방식으로 정리하면 火: 1,371,823,808개, 土: 4,718,953,095개, 金: 5,187,112,651개, 水: 2,066,949,948개로 한국 531개의 성씨에 발음오행 기준을 맞춰서 두 글자로 작명하면 총 14,437,501,670개의 작명이 가능하다. 이는 발음오행을 적용하지 않고 가능한 35,201,139,084개의 이름과 비교할 때 약 41.0%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즉, 발음오행 기준을 적용하여 성씨에 맞게 작명하려면 약 59%에 해당하는 이름들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동일한 방식으로 해례본을 적용할 경우 가능한 두 글자 이름은 41,835,716개가 나오며 이것은 발음오행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의 66,292,164개에 비교할 때 63.1% 만을 활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한국 531개의 성씨에 대해 해례본 발음오행 기준을 적용한 두 글자 이름은 총 14,584,697,124개이다. 이는 발음오행을 적용하지 않고 작명 가능한 35,201,139,084개의 이름에 비해 약 41.4%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이와 같이 운해본이든 해례본이든 발음오행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성씨의 종류와 대법원 지정 인명용 한자가 제공하는 다양한 이름들을 자유롭게 활용하는 것을 거부하고, 이름만의 경우 약 40%, 성씨까지 포함할 경우 약 60%에 해당하는 이름들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이는 한글이 백성들에 의해 자유롭고 편하게 사용되기를 위한 훈민정음의 창제의도에 반하는 일이라고 본다. 또한, 대한민국의 인명 규정은 성씨를 제외하고 이름에만 다섯 글자까지 허용하므로, 좀 더 독특하고 자신만의 의미를 가진 세 글자 이상 다섯 글자까지의 특별한 이름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발음오행 적용은 더 많은 제약을 줄 것이 자명하다.

2.6 발음오행 미적용 추정 사례

실제 우리 조상들은 작명에 있어서 발음오행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었는데, 음양오행사상을 국가통치사상에 반영한 조선왕조 또한 27대 왕들의 이름 중에서 태조 이성계(1대) 金靑木, 정종 이방과(2대) 土靑水, 태종 이방원(3대) 土靑水, 예종 이광(8대) 木靑土, 선조 이균 -> 이과(14대) 木靑土, 순조 이공(23대) 木靑土, 철종 이변(25대) 土靑水 등처럼 일곱 명의 이름이 운해본을 기준할 때 발음오행 상으로 맞지 않음을 알 수 있으며[24], 훈민

정음이 창제된 4대 세종 이후에도 네 명에 해당하는 왕의 이름이 발음오행 기준에 맞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권율 木靑土, 김정호 金靑木, 곽재우 金靑木, 김홍도 木靑土, 김옥균 木靑土, 안중근 木靑土 등 나라를 빛낸 많은 위인들의 이름이 운해본 기준 발음오행과 무관한 이름인 것을 볼 수 있으며[25],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 12명의 이름을 보더라도 해례본, 운해본 어느 기준에도 상극하지 않는 이름은 이승만, 박정희, 문재인 등 세 명에 불과하다. 한편, 거의 모든 가문들이 사용했던 돌림자(항렬, 行列)가 木, 火, 土, 金, 水의 음양오행사상을 기본적으로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음오행 기준을 적용한 작명 근거를 찾을 수 없는데,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 우리 조상들이 음양오행사상을 바탕으로 이름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발음오행 기준은 적용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발음오행 기준을 적용했다면, 한글창제의 원리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았던 신숙주가 자기 자신의 손자 이름을 木靑土하는 신용개로(운해본 기준), 金靑木, 木靑土하는 신광한으로 짓지는 않았을 것이며(운해본 기준), 그들의 후손들도 木靑土하는 신용구, 金靑木하는 신광수로 작명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한, 『훈민정음운해』를 저술했던 신경준은 신숙주의 친동생 신말주의 직계 6대손으로서 신경준이라는 이름 또한 金靑木하는 이름이며, 세 번째 부인에게서 귀하게 얻은 장남 신재권(1777.8.01. 출생)과 차남 신두권의 이름을 金靑木, 火靑金하는 이름으로 짓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것은 신경준이 1750년에 저술한 『훈민정음운해』 이후에 태어난 자신의 친자식들에게도 발음오행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더 넓게는 작명에 있어서 발음오행 적용 자체를 고려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3. 문제점에 대한 원인 분석

앞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한글 발음오행 기준을 성명학에 적용하게 되면 다양한 문제점을 유발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원인은 크게 발음오행의 유래와 작명계의 문제의식 부재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원인들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앞에서 언급한 모든 문제점들을 야기하였다고 본다.

3.1 발음오행의 유래 원인

한국에서 발음오행 작명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일제에 의해 1940년에 강제 시행된 창씨개명 당시 일본 작명가인 구마사키 겐오와 그의 제자들이 일제의 지원을 받아 진행한 일본식 발음오행 기준의 적용이었음을 선행 연구들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도외시한 채 발음오행 작명법을 고수하는 것은 애민사상과 주체사상을 가진 훈민정음 창제 목적을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한국어와 음양오행이론에 대한 충분한 지식 없이 개발된 발음오행 작명법은 훈민정음 3음소 체제와의 괴리와 음양오행이론에 대한 편협한 해석이라는 좀 더 직접적인 원인을 갖고 있다.

3.1.1 훈민정음 3음소 체제와의 괴리

창씨개명을 계기로 한 일본식 발음오행 적용은 해방 이후에도 한국 작명가들에 의해 훈민정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연구 없이 한국어에 적용되었고, 하나의 음절을 한 개의 발음으로 표기할 수밖에 없는 음절문자인 일본어의 특성상 한국어에 대한 일본식 발음오행 기준 적용은 한국어 하나의 음절에 한 개의 발음오행을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한글은 음절문자이면서도 또한 음소문자이기 때문에 하나의 음절이 세부적 음소인 초성, 중성, 종성이 나뉘지게 된다. 이러한 음소 구분이 불가능한 일본식 발음오행 기준의 한국어에 대한 적용은 한국어 음절의 초성만을 대상으로 발음오행 기준을 적용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훈민정음의 제자원에서 본 것처럼 훈민정음은 하나의 음절이 세 개의 음소로 이루어져 있고, 이는 가장 독특하고 창의적인 훈민정음의 특징이다. 이러한 훈민정음의 1음절-3음소 구조를 반영하지 않은 것은 발음오행 작명법의 중성배제 문제, 종성배제 문제, 이름의 다양성 제한과 더불어 3음소 체제의 자연어 방식인 순우리말 이름 작명 시 문제 등을 유발하는 것이다.

3.2 오행이론에 대한 편협한 해석

또한 발음오행 작명법은 편협한 음양오행 해석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음양오행의 상극은 부정하고 상생만을 채택하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발음오행 상으로 ‘나경덕’이라는 이름은 가운데 글자인 ‘경’자의 초성 ‘ㄱ’이 성씨인 ‘나’의 초성 ‘ㄴ’과 마지막 글자인 ‘덕’의 초성 ‘ㄷ’을 잘 되도록 木生火로 생해주고, 앞뒤의 두 글

자 조성은 생함을 받으므로 좋은 이름이라고 주장한다. 이름 세 글자 중에서 두개 글자 발음이 생을 받기에 좋다는 것인데, 생을 해주는 ‘ㄱ’발음 입장에서 보면 도움을 주기만 할 뿐, 이름 내에서 도움 받을 발음이 없기 때문에 나쁜 영향(설기, 洩氣)을 받아야 하는 것이 된다. 즉, 발음오행론이 발음에 대해 오행의 상생상극을 적용한다는 것은 생함을 받는 발음의 입장만 고려한 것이지 생을 해주는 발음의 입장은 반영하지 않은(편생, 偏生) 것이다. 음양오행의 상생상극론은 상생과 상극이 적재적소적기에 작용하여 전체적으로 가장 자연스럽게 조화로운 상황을 만들어가고, 변화되는 상황 속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원리를 밝힌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단지 이름을 구성하는 몇 글자의 발음 중에서 어떤 것이 생을 줄 때와 받을 때, 극을 할 때와 당할 때에 어떤 것이 좋을지 나쁠지에 대한 세부적인 규명 없이 상생만의 발음오행을 작명에 적용하는 것은 오행이론에 대한 편협한 해석 때문이라고 본다. 상극의 긍정적 역할에 대해 만민영(김정안 편저, 2017)은 “극(尅)은 억제, 제어, 단절, 제약, 역량을 감소, 삶을 억제하여 저장하는 특성이 다.[26]”라고 하여 절제의 미덕을 주장하였고, 박승복(2005)은 “상극은 변화를 불러 새로운 일을 만들어 내는 역할도 한다.[27]”고 하였고, 전광(2007)은 “소우주인 인간에게 생(生)은 혈액의 순환과 같고, 극(尅)은 심장의 박동과 같아서 생은 극으로 이어지고 극은 생으로 이어진다. 잘 헤아려서 ‘발음오행의 상생’이란 굴레에서 벗어나 좋은 이름을 지어야 한다.[28]”라고 하였다. 또한, 오행상생론보다 오행상극론이 먼저 정립되었다는 것과 상극론이 상생론의 발생에 큰 영향을 미친 사실[29]을 고려하면 상극에 대한 이해와 해석은 더욱 깊이 다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상극의 긍정적, 순기능적 의미를 배제하고, 전체적인 음양오행적 조화로움과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한 음절의 초성발음에 있어서의 상생(相生) 부분만을, 그나마도 편생(偏生)의 입장만을 견지하는 발음오행 상생론은 음양오행론을 매우 얕게 이해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고, 이러한 음양오행에 대한 편협한 이해는 무의미한 초성 발음이 상생상극 한다는 비합리적인 발음오행 작명법을 고안해내게 된 것이다.

3.3 문제의식 부재 원인

일반적으로 작명계는 스승으로부터 제자에게 전수되

는 지식의 흐름이 매우 폐쇄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러한 작명계의 특징적 폐쇄성은 자신이 전수받은 이론 외에는 대체적으로 거부하는 입장을 고수해 왔고, 그로 인해 새롭고 발전적인 이론의 성장을 제한하였다. 창씨 개명을 계기로 확산된 발음오행 작명법은 태생적으로 한국어와는 이질적인 작명법이었지만 시대적 상황과 경제적 목적에 의해 수용된 뒤로 해방 이후에도 한국어를 작명에 적용되었고 세대를 거치면서 작명계의 폐쇄성에 의해서 현재까지도 관행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러한 폐쇄성으로부터 발생한 비판적 문제의식 부재는 운해본과 해례본 기준의 충돌을 야기하였고, 발음자체의 무의미성, 음운규칙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조차 배제하였다. 또한, 한글 발음오행 작명법의 유래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순우리말 이름 작명 시, 두 글자 이상의 성씨, 이름의 다양성 축소, 미적용 사례, 영어이름에 적용 등의 많은 모순점을 유발하고 있다.

4. 결론

발음오행 작명법이 일본식 작명법에서 유래했다고 하더라도, 그 원리와 내용이 타당하고 합리적으로 국어에 접목이 가능하며 실제 우리의 언어생활과 작명 문화에 도움이 된다면 적극적인 연구와 활용을 통해 우리의 것으로 재탄생시키는 노력이 필요하겠으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발음오행 작명법은 원리와 내용에서 그 자체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고 그것을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들로 인해 더 이상 활용해서는 안 되는 작명법이라는 것이 명백하다. 세종이 조선의 말이 중국의 말과 달라서 한자를 모르는 백성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훈민정음을 만들었는데, 발음표현에 있어 한국과는 중국보다도 더 큰 차이가 있는 일본식 작명법에서 태동한 발음오행 작명법을 한국인의 이름에 적용한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문제점을 유발하며 모순인지에 대한 인식의 공유가 한국의 모든 작명가들에게 필요하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훈민정음의 발음오행을 작명에 적용하는 것은 훈민정음 창제의 본뜻인 한국어의 자유로운 표현에 대해서 한국인 스스로가 한글을 제한하는 크나큰 모순이다.

아울러 오행론이 성명학에 도입된 근원적인 이유가 개인이 갖고 있는 사주의 약점을 보완하고자 함이라는

것을 고려하여 발음오행을 적용하지 않되 합리적인 작명 방법으로 기존에 존재하던 작명법 중에서 자원오행(字源五行) 중심으로 한 작명법을 제시한다. 자원오행 작명법은 음양오행의 원리를 중시하면서도 발음오행은 적용하지 않는 방식이다. 또한 부족한 개인 사주의 오행을 대법원에서 지정한 인명용 한자의 자원오행(字源五行)으로 보완하는 작명법이기도 하다. 이러한 방식은 이름을 통해서 개인 사주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는 성명학의 목적에 부합하며 조화와 균형을 추구하는 음양오행론의 사상을 작명에 적용한 합리적인 방식으로 보며, 글자의 원형 또는 의미와 관련된 보편적인 작명방식이기 때문에 한글 발음오행 작명법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보며, 구체적인 내용 제시는 다음 연구에서 진행하고자 한다.

References

- [1] Y. J. Choi, "A Study on Korean typographic expression focused on the structure which is similar to molecular system", MA.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p. 4, 2009.
- [2] E. S. Shin, "A Study on Low childbirth as conflicts and negotiation to 'motherhood as institution'", MA.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p. 99, 2005.
- [3] D. Y. An, J. S. Kim, Y. J. Lee, "The Effect of Name Energy on the Human Health",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Body-Mind-Spirit Science, Vol.16 No.2, pp. 27-45, 2012.
- [4] S. C. Shin & S. J. Cho, "The Impact of Names upon the Stress and Self-esteem Before and After Renaming",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5 No.5, pp. 2262-2270, 2014. DOI: <https://doi.org/10.5762/kais.2014.15.5.2662>
- [5] S. Y. Shin(2012), H. A. Jo(2013), J. S. Jeong(2016), H. S. Ku(2017), N. S. Shin(2017).
- [6] H. H. Han, "A Study on King Sejong's Affection for the People", MA.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pp. 28-58, 2017.
- [7] A. H. Han, "A Study on the Beauty of Calligraphy with Hunminjeongeum and Yongbiocheonga", MA. Thesis Kyunggi University, pp. 20-22, 2009.
- [8] S. H. Lee, "A Study on the Purpose of Invention of Hunminjeongeum -Focused on Legal Procedures in Preface of Hunminjeongeum Haerye", MA. Thesis, Myongji University, pp. 17-22, 2016.
- [9] S. B. Kim, "An Oriental Philosophical Study on the Theory of Creation of Hunminjeongeum", MA. Thesi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pp. 20-38, 2003.
- [10] S. Y. Han, "A Study on the Aspect of Transfiguration in the Court Style of Hangul", Ph. D. Thesis, Wonkwang

University, p. 8, 2014.

- [11] J. W. Ban, "The Reason of Difference with the Order of Arrangement of Consonant and Vowel in Hunminjeongeum", Journal of the Culture & Arts Institute in Dongbang Culture University, Vol.3, p. 137, 2014.
- [12] H. S. Ku, "A Study on 「Hunminjeongeum」 and the Five Elements of Pronunciation in Naming Technique", MA. Thesis, Daegu Haany University, p. 15, 2017.
- [13] J. A. No, "A Study on Nationalistic Literary History of Inventing Hunminjeongeum", MA. Thesis, Chung-Ang University, p. 32, 2013.
- [14] M. T. Kim, "The Vestigae of Japanese Naming-ology Propagated in the Period of Name Changing Program by Japan ", Journal of the Institute for East Asian Cultures in Hanyang University, Vol.57, pp. 131~160, 2014.
DOI: <https://doi.org/10.16959/jeachy..57.201405.131>
- [15] S. Y. Shin, "The study for the Naming theory on Study of the Name", MA. Thesis, Kyunggi University, p. 71, 2012.
- [16] S. Y. Shin, "The study for the Naming theory on Study of the Name", MA. Thesis Kyunggi University, p. 82, 2012.
- [17] M. J. Chang, "A study of vowel epenthesis in English pronunciation by high school students". Secondary English Education, Vol.1(2), pp. 81-94. 2008.
- [18] M. T. Kim, "A Study on the Naming Requirements of Modern Korean Society", Journal of the Korean Folklore Society, Vol.62, p. 293, 2015.
- [19] K. S. Kim, "Scientific Myongri", p. 280, Dasangeulbang, 2009.
- [20] Y. J. Choi, "A Study on Korean typographic expression focused on the structure which is similar to molecular system", MA.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p. 4, 2009.
- [21] T. Shimbo, "A Study on Internal Structure of Korean Consonants and Phonological Phenomenon - Element Theory", Ph. D. Thesi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p. 20, 2016.
- [22] K. S. Kim, "Naming Theory with JawonOhang", pp. 5-6, Dasangeulbang, 2017.
- [23] S. J. Choi, "The phonological activation in Korean word and non-word recognition: Evidence from Event-related potential", MA.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p. 5, 2016.
- [24] K. S. Kim, · J. H. Lee, "Dictionary of English Naming for Korean", p. 44, Dasangeulbang, 2015.
- [25] K. S. Kim, · J. H. Lee, "Dictionary of English Naming for Korean", p. 44, Dasangeulbang, 2015.
- [26] M. Y. Man, (compiled by J. A. Kim), "Sammyungtonghweijeokyo(三命通會摘要)", p. 22, MoonwonBook, 2017.
- [27] S. M. Park, "A Study of Names: it's Theories and Problems", MA. Thesis, Kongju National University, p. 36, 2005.
- [28] G. Jeon, "Textbook of Our Names", p. 180, Donghaksa, 2007.

- [29] K. S. Kim · S. C. Lee, "History and principles of Yin and Yang Five", pp. 185~186, Dasangeulbang, 2017.

김기승(Ki-Seung Kim)

[정회원]



- 2009년 2월 : 경기대학교 대학원 직업학전공 (직업학석사)
- 2011년 2월 :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미래사회교육전공 (교육학박사)
- 2014년 2월 : 경기대학교 대학원 직업학전공 (직업학박사)
- 2003년 3월 ~ 현재 : 한국선천적성평가원장
- 2012년 5월 ~ 현재 : 사단법인 한국작명가협회 이사장
- 2012년 3월 ~ 현재 :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동양학과 교수

<관심분야>

성명학, 성격심리, 진로상담, 선천적성, 직업심리

이종훈(Jong-Hun Lee)

[정회원]



- 2015년 2월 :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국학과(명리 석사)
- 2018년 2월 :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동양학과 명리진로상담전공 (동양학박사)
- 2014년 12월 ~ 현재 : 사단법인 한국작명가협회 이사
- 2017년 3월 ~ 현재 : 오행스쿨 성명학 전임강사

<관심분야>

성명학, 훈민정음, 선천적성, 음양오행, 천체물리